

## 법무매거진

###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법조인 동정

허영(사진)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달 8일 공고를 통해 허 석좌교수를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석좌교수는 1936년 충남 부여군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독일 본 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으며 1978년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는 연세대 법대 교수로 일했다. 1996년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약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임명됐고, 2013년 퇴임한 후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한 법조인 및 법학자를 선정해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